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로 충치 40~70% 예방 효과

건강 바로 알기 영구치 충치 예방

지명관 조선대학교병원 소아치과 교수

제 1대구치(새로 난 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는 만 6세경 유치 어금니 뒤쪽에서 올라온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구치는 맹출 직후 아직 단단해지지 않아 충치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성인의 영구치에서 볼 수 있는 치아가 편평하게 마모되는 변화가 없어서 치아의 씹는 면의 형태와 구조가 복잡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치아의 씹는 면은 소와 및 열구가 깊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물 잔사의 저류와 치면세균막의 축적이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칫솔질에 의한 제거가 어려우므로 우식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치아 홈메우기 보험적용-어린이는 특히 가장 뒤에 있는 어금니 칫솔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금니의 소와 및 열구 부위를 전색제로 도포해주는 치면열구전색(홈메우기) 방법은 씹는 면의 충치 예방에 있어 가장 믿음직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홈메우기의 충치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40~70% 정도의

영구치 어금니 보험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10%
치아 주기적으로 검사 전색제 탈락 여부 확인해야

충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제 1대구치 4개의 치아 홈메우기는 보험급여 적용이 시행되었고, 이후 하한연령을 삭제해 치아 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일찍 맹출한 어린이가 보험적용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제 2대구치(두 번째 영구치 어금니)까지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하였다.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되었다.

홈메우기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의 충치 발생 위험도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치치료를 받은 치아의 개수, 불소의 사용 여부, 구강위생 상태, 그리고 치아의 씹는 면의 형태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치과의사가 평가해 아직 충치가 없고 치아 씹는 면의 소와 및 열구가 깊고 분명하여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치아가 홈메우기 적용 대상 치아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난 첫 번째 영구치 어금니가 홈메우기를 시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치아로 알

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잇솔질이 잘 되지 않으면서 깊은 소와 및 열구를 갖는 치아들은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홈메우기 해서는 안 되는 경우-다만 몇 가지 경우에 치아 홈메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치아가 있다.

첫 번째는 씹는 면에 충치가 있는 것이 분명한 치아이다. 충치가 존재할 경우 이 치아는 치아 홈메우기에 사용되는 전색제 대신 우식이 제거된 후 복합레진과 같은 다른 충전 재료로 치료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아직 충분히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치아이다. 치아가 맹출 중인 상태로 아직 소와 및 열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나 잇몸이 부분적으로 치아를 덮고 있는 경우에는 치아가 잇몸 밖으로 더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치아 홈메우기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치아의 소와 및 열구가 근본적으로 깊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나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건전한 치아에는 홈메우기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개인의 충치 발생 가능성 정도에 따라 치과의사가 판단한다.



지명관 소아치과 교수가 어금니에 충치가 생긴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병원 제공〉

한번 홈메우기를 시행했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홈메우기를 한 치아는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전색제의 탈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탈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는 다시 홈메우기를 시

행해주어야 한다. 또한 홈메우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충치가 예방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칫솔질과 식이조절, 불소의 사용과 같은 다른 예방법이 병행되어야 완전한 충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

나 치아가 맹출 되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충치 예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치료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정리·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수영대회 의사들 가운 속은 땀이 '줄줄'

청연, 광주세계수영대회 현장의사 14명 파견
남부대 수구경기장 FOP 구역에서 의료 지원

무더위를 넘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장 의사(FOP)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청연에 따르면 청연현방병원과 수완정연오양병원, 서광주정연오양병원 의과 의료진 14명은 수영선수권대회 훈련기간인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장 FOP구역에 파견돼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맡고 있다.

FOP란 'Field Of Play'의 약자로 선수들과 필수 운영인력만 접근 가능한 경기구역을 말한다. 경기장 최일선에 배치, 경기 중 발생하는 선수들의 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부분 이번 의료지원에 나서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으로 청연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청연은 10여일간 의과 의료진 파견으로 인해 병원별 진료 인력 공백이 다소 불가피하지만 의과·한 의과 협진병원으로서 광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국제행사에 보탬에 되고자 파견을 결심했다.

청연 의료진들이 파견된 경기장은 남부대 수구경기장으로 의료진들은 FOP 구역에서 건강유지와 부상약화 방지를 위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나선다.

청연 의료진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 처치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의무실로 이송된 환자는 실내에 근무하는 선수의무실 의사가 맡게 된다. 선수들과 필수 운영인력만 접근 가능한 현장이다 보니 근무 환경에 어려움이 많다.

경기 중에 구역을 지키며 부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무더위에 펼쳐지는 장외 경기는 고통스럽다. 대기 구역에 냉방 용품이나 그늘막조차 없애 의사 가운데 땀으로 흠뻑 젖기도 한다.

서광주정연오양병원 조형준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광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뜻깊은 국제행사에 파견돼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파견기간동안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러시아 의료시장 개척 속도낸다

이르쿠츠크 방문 환자 무료 진료
제1-제3시립병원 네트워크 강화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정신)의 러시아 시베리아지역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신원장과나국주(흉부외과)·권동득(비뇨의학과)·장우열(신경외과)·유영재(내분비외과)교수를 비롯, 9명의 의료진 등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이르쿠츠크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개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에 화순전남대병원이 올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특히 동시베리아의 행정·경제·문화 중심지인 이르쿠츠크시를 러시아 의료진출 거점으로 삼기 위해 그동안 공을 들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방문, 현지의 대형병원들과 MOU를 맺고 의료설명회 등도 개최한 바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현지 병원에서 환자들을 무료진료했다. 무료진료상담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 현지의 뜨거운 열기를 뒷받침했다. 이들 중 일부는 화순전남대



화순전남대병원 정신 원장(앞줄 오른쪽) 등 의료진이 최근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방문, 제3시립병원과 협약만료된 MOU를 재차 체결하고 상호협력력을 넓혀나갈 것을 약속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병원을 방문해 수술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3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정신 원장으로 부터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오세프코바 엘레나(55)씨 등 화순에서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 5명도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와 진료상담을 받았다. 이들은 "화순은 비행기로 3시간여 거리인 서울보다 훨씬 먼 한국의 남부에 있지만, 숲으로 둘

러싸인 아름다운 환경, 수술기법과 의료서비스 등 치료의 만족도 면에서 꼭 가볼만한 곳"이라고 주위에 적극 추천했다.

방문단은 해외협력병원인 이르쿠츠크 제1시립병원을 찾아 첨단의료 설명회도 가졌다. 협약이 만료된 이르쿠츠크 제3시립병원과는 새로이 MOU를 체결,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탄탄히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